

시론



주홍

치유예술가
샌드애니메이션아티스트

“언니,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며칠 간은 현기증과 근육통 정도만 있어서 항생제와 두통약 먹고 견디며 생활했는데, 일주일도 지났는데 점점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근육통과 구토 증상에 열이 40도 가깝게 오르고 약 먹어도 떨어지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아서 몇 군데를 돌다가 청주까지 왔어.”

며칠 전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힘없이 울먹이며 죽을 만큼 아프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일단 머리가 아프니 신경내과에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어서 다시 호흡기내과로 가서 여러 검사를 하고 결국 항생제와 해열제 처방을 받았다고 한다. 동생은 다시 대학병원으로 입원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병원 치료가 일반인

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 수익을 맞추기 위해 사무장을 두고 진료 컨설팅이盛行하고 과잉 진료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계속 변이 바이러스는 등장할 것이고 질병은 우리 삶을 더욱 위협할 것이다. 서서히 ‘위드코로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역병이 없을 때도 삶이 고달픈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은 병원이 포화상태인 요즘 어떻게 살아갈까? 아프면 일반인들도 여러 병원을 전전공하며 찾아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더 소외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 어렵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공공의료를 담당할 바나는 의료원이 문을 열었다. ‘우리동네의원’이다. 광주에서는 처음이다. 891명의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으로, 사회적 약자를 공동으로 보살피는 의료공동체다.

‘우리동네의원’은 시민조합원이 주인이 돼 운영에 참여하며 함께 치료가 필요한 약자들을 돌보게 된다. 광산구와 시민단체가 2015년부터

의료복지협동조합을 준비해서 시민들이 심시일반 마음을 모아 조합원이 되면서 참 인간적인 공공의료원이 광주에 들어선 것이다.

광주의 공동체 정신은 우리 사회가 위태로울 때 그 결정체가 드러나곤 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가장 어려운 시절에 따스한 빛과 같은 소식이다. 광산구 우산동은 부근에 하남공단이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다. 우산동 빛고을 국민체육센터 1층에 공공 의료 돌봄 시스템을 갖춘 ‘우리동네의원’이 들어섰더니 그 뜻에 맞게 자리도 잘 잡은 것이다.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했던 임형석 원장님을 비롯한 간호사, 방사선과, 작업치료사 등의료진 4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감수하고 상주하며 가정의학과, 내과 진료를 한다.

특히 장애 친화적 진료를 제공하고 조합원에게는 전담 주치의가 지정되어 관리되며, 조합운영, 교육과 강좌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우리동네의원’ 조합원들은 공동체의 돌봄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의 결합체다.

참으로 놀라운 공동체 정신이다.

정남관 이사는 오히려 늦었다고 자책하며 말했다. “전국 24개 협동조합이 이미 있습니다. 광주가 늦은 것이죠. ‘우리동네의원’의 의료진들은 환자가 병원을 찾는 진료뿐 아니라, 오후에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도 합니다. 방문할 경우 환자들의 식단 관리, 주거환경의 문제, 사회적 관계개선 등의 생활문제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들과 취약계층 친화병원은 공공의료에서 챙겨야 합니다. 상업적인 의료환경시스템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라고 그동안 광주에서 소외된 복지가 의료복지였음을 강조했다.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장 인간적인 의료 실현하기 위하여 준비한 ‘우리동네의원’은 의사와 환자, 이웃이 함께 치유하는 주치의제를 실현하고 의료의 돌봄을 통합,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공공의료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광주 정신의 실현이다. 나도 조합원이 되기로 했다.

社說

날로 심각성 더하는 광주 학동 참사 2차가해

후진국형 인재로 기록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 여기에 2차가해까지 이어지며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의 상처를 후벼파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감춰진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야만 한다며 책임자가 할 자들이 자신의 잘못에 걸맞게 처벌받아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인격적 살인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세월호 유족보다 조금 더 보상해줄 테니 합의하고도 도발해 왔다는 폭로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조롱에 가깝다.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과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지극히 무도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당시 현장의 영상을 드라마에 사용한 공영방송사 SBS를 향해서도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마저 내팽개치고 오직 돈만 되면 된다는 야만성을 드러냈다면서 면피용 사과와 말뿐인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야간 차량시위 나선 자영업자 심정 헤아려야

자영업자들이 처음으로 전국 단위 차량시위를 벌였다.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절박했다. 서울에서는 참가자들이 비상등을 켜고 사행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고, ‘SOS 신호’라며 일정한 박자에 맞춰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위 방법을 안내했고 광주도 동참했다. 시청 인근 도로에서 각자의 차량에 ‘거리두기 보이콧’이나 ‘생존권 보장’ 등의 현수막을 붙인 채였다.

자영업자들은 모든 행정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 6개월 66주가 넘는 빛을 떠안았고 45만3천개 매장을 폐업했다며 치명률이 0.1%대로 낮아진 현재까지 방역체제 전환을 준비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떠안도록 강요되는 현실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호소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기만 하다. 일일 신규확진자가 다시 2천명대로 올라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도 2학기 전면등교 이

따돌고 있는 루머와 유언비어도 심각한 수준으로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20억을 받았더라’, ‘더 받기 위해 거리에 나섰더라’는 등등은 완전한 거짓인 것이다.

2차가해 앞에 피해자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 그 심정을 헤아려 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진심으로 소통해야 할 광주시와 동구청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는 지적은 또 뭇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며 사무적으로 일관했고 급기야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TF팀을 해체했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한다. ‘거대한 관료의 벽’이라고 언급했는데,기가 잘 노릇 아닌가.

광주시는 유가족 장례, 부상자 의료지원 및 피해자가족 심리 지원, 변호사 선임비용과 추모공간 조성 지원 등을 위해 TF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앞으로라도 지속해서 진정성을 보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2차가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정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광주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

후 학교까지 집단감염이 잇따라 초비상이다. 당국의 고민이 깊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며 인내만 요구해서는 안되겠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방역단계를 다소 완화했다고 하나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한계치를 넘어선지 오래다. 거리로 나선 심정을 심분 헤아리고 살펴야 하는 때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배려하면서 실질 지원에 팔을 걷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지를 밝힌 것처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인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그 시점은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이 완료되는 11월 말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방역수칙에 순종하고 잘 따랐지만 그 결과는 피와 눈물밖에 없다고 한다. 앞으로 영업제한을 해제하는 대안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겠다. 장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재발 좀 살려달라는 읍소에 이제 는 답해야 한다.

문화난장



최명숙

현대병원장

휴가 삼 일째, 보슬비가 내리는 새벽엔 풀벌레 소리가 천지를 더 공명하는가 보다. 베토벤 바이올린소나타까지 다 집어 삼켜버린다. 산마루에 우뚝 선 한 그루의 나무는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매우 희귀한 광경이다. 저런 나무는 참으로 귀하다. 저 높은 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음에 찬탄이 절로 나온다. 오랜 시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아마도 저 산중의 대장 나무로 어린 나무들을 보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빛 하늘이 톱 트인 이 작은 마을은 양산이다. 부산의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다고 고한 콘서트, 노자와 베토벤을 듣기 위해 왔다. 철학자 최진석교수와 오충근 마에스트로와 폴라보다. 이 둘은 7년째 철학과

음악의 만남을 도모해 오고 있다. 2013년 봄, EBS 인문학강의-노자에서 처음 본 최진석 교수는 시대를 일갈하는 멋진 사람이었다. 김용옥 교수의 ‘노자와 21세기’를 들은 후 노자에 관한 책을 거의 열권 이상 읽었던 터라 그의 풀이가 궁금했었다. 유무상생을 풀이하고 늘 두가지의 반어법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의 어조는 확실히 매력에 있었다. 무엇인가 폐부를 찌르는 반성모드와 가슴 속에서 다시 새롭게 불려 일으키는 힘이 있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주제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평생의 주제를 과감없이 토해내는 그는 누구인가?” 등등의 화두를 내던지곤 했다. 그리고 우리는 7년 전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노자와 베토벤’ 뒤풀이에서 만났다. 광안리 횡집에 앉아 데면 데면 호구 조사를 했다. 광주라는 같은 도시에서 같은 시대에 종교대학교를 나오고 나이도 같아 우리는 친구를 하기 했다. 말(?)만 친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하의면 장병도에서 태어난 그는 함평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살레시오중학교와 대동고를 졸업했다. 그때는 “음~ 심하게 촌사람이었던 군”하고 속으로 되뇌었음을 고백한다. ‘노자와 베토벤’은 춘하추동, 고진감래를 거치면서 계속되었다. 그 사이에 최교수는 건명원을 설립하여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새로운 시도로 건명원을 운영했다. 학생들을 독특한 방식과 철학으로 교육하여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60이 되던 해, 하의도 본인의 태자리에 절을 세 번하고 돌아와 삶의 키를 확 바꿨다. 교수직을 미련없이 던지고 그만 둔 뒤 고향으로 낙향해 집을 지었다.

사람이 훌륭하면 장소도 명소가 되는 걸까. 최진석 교수의 고향집은 함평의 유서 깊은 향교 근처에 있다. 자그마한 농촌 집 사이에 독특한 설계와 공법으로 ‘호접몽가’란 집을 지었다. 장자가 전공인 그와 어울리는 집이다. 또 함평이 다 비축재로 유명한 것은 또 무슨 연인지. 호접몽가는 멋진 공간이다. 공간은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

가면서 에너지로 채워진다. 모든 스토리는 공간의 사이사이, 그 ‘빔’과 ‘틈’에서 이루어진다. 이제껏 향후에도 많은 인제가 배출되어 민족에게도 국가에도 보탬이되고 그 개인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와 나는 이제 친구가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공감해주는 사이라면 친구가 아닌가. 이 친구가 어제 멀리 부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해야겠다고 한 말이 새벽에 나를 깨웠다.

“당신은 자기자신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해서 나를 감동시킬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를 고요 속에서 공감시키게 할까?” 나의 삼개월 안식월의 화두를 던져준 친구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다. 그가 행한 ‘노자와 베토벤 폴라보 콘서트’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 크게 인다. 이런 공연이 왜 광주에선 열리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떨쳐내기가 힘들다. 그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서 기쁘고 좋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야외 활동과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보행자 스스로 지켜야 할 교통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사람이 먼저임을 인식하는 교통 문화 형성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가 3.8명으로 OECD평균(1.2명)의 3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사회의 차량 우선 교통문화의 만연으로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도로 위 국민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농촌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도변에 농기계 등이 운행 중일 수 있다는 사실과 노인들이 도로를 보행하고 있음을 감안, 전방주시 및 규정 속도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경찰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눈높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인지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투광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노후 훼손된 교통시설물의 개선 및 보강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 우선 정책을 추진해 도심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 시행하고 있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시적인 안전 활동과 교통 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확 대하고 구역 내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다.

보행자 중심 선진 교통 문화의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보행자, 운전자 양측 모두의 가슴 속에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과 실천이 바탕이 됐을 때 비로소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오영·구례경찰서 교통관리계〉

추석 명절 택배 피해 예방위한 작은 실천

최근 온라인 쇼핑 문화의 발달에 따른 배달 문화가 생활화되면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차량이 택배 물량이 넘쳐나다보니 이동시간을 아끼려다 범죄를 저질러 버거나, 화물칸을 열어놓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또 매년 이맘때쯤이면 절도범들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현관앞에 놓아둔 배달된 택배물품을 훔치거나 차량에 키가 꽂혀 있는 택배차량을 아예 통째로 훔쳐가는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선물을 가득 싣고 배달하는 택배 기사가 급한 마음에 차량에 시동을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채 배달을 하는 사이 화를 당한 것이다. 설마 5분정도면 물건을 배달할 것인데 그사이 무슨일이 있겠느냐는 안사람이 먼저라는 인식과 실천이 바

늘면서 명절에 택배 수령을 대행해주는 아파트에서도 보관중인 택배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1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경비원 수령이 전체 아파트 동을 관리하곤 보니 택배 물건을 오류를 일으키는 사람이 실제 입주민인지, 외부인인지 쉽사리 확인이 어려워 이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결국 경비원들은 택배 물건만 지키고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방이다. 우선은 고객들이 실제로 택배 물건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입하는 한편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관리실 등에 위탁을 하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가 되도록 사전에 경비실과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의사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네 마녀의 날’ 1.53% 급락…외국인·기관 1.2조 순매도

코스피가 ‘네 마녀의 날’이라 불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9일 하락하며 3,110대로 밀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8.29포인트(1.53%) 내린 3,114.70에 마감했다. 3일 연속 하락한 코스피는 종가 기준 지난달 23일(3,090.2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지수는 전날 뉴욕증시 하락 영향으로 1.635포인트(0.52%) 내린 3,146.64에서 출발한 이후 낙폭을 키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8일(현지시간)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미 경제의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리다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여기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182억원과 9천311억원을 순매도하며 낙폭을 키웠다. 개인은 1조2천15억원여치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매도 속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2.5원 오른 달러당 1,169.2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초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 의 650-2099	FAX
	정지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 고 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 획 사 업 국 650-207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인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